

유럽서 인정한 SUV... 실내·안정감·성능·경제성 다 갖춰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르노코리아의 목표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에 대해 김민영 르노디자인센터서울 수석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XM3의 경쟁력은 간간하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능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XM3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은 모델'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최근 XM3의 장거리 시승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매력을 확인했다. 시승은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 'XM3 E-TECH 하이브리드'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를 출발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광주비엔날레를 다녀오는 약 70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복잡한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을 다양하게 주행했다.

XM3 하이브리드는 소형으로 분류



르노코리아 XM3 E-TECH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왼쪽)과 실내 모습.



‘합리적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車’
간간한 유럽서 흥행 돌풍 이어가
공간·주행, 중형 SUV 못지 않아
F1경주차 하이브리드 노하우 접목
전 트림 주행안전·편의 기본 장착

되지만 실내 공간과 주행 안정감 등은 중형 SUV 못지 않았다. 소형 SUV 특유의 가벼움이나 불규칙 노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도 단단한 하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XM3 하이브리드는 1.6MPi 기술린

엔진과 구동모터, 시동모터 등 두 개의 전기모터를 통해 합산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15.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구동 전기모터는 36kW, 발전 기능을 겸하는 고전압 시동모터는 15kW 출력을 낸다.

XM3 하이브리드 구동계는 르노그룹 F1 경주차에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주행에서 XM3 하이브리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 개입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부드럽게 출발했다. 시속 50km 이하 도심 저속 주행에서는 특히 변속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부드럽게 가속해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했다. 전기모터 특유의

높은 토크로 초반 가속이 경쾌하고, 실내도 전기차처럼 조용했다. ‘왼 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 하나로 가감속을 모두 수행하는 운전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기차의 모습을 빼닮았다.

XM3 하이브리드의 차체 크기는 길이 4570mm, 너비 1820mm, 높이 1570mm, 휠베이스 2720mm다. 수차상 경쟁 모델인 코나(2630mm)와 트레일블레이저(2700mm) 보다 길다. 덕분에 성인 4명이 탑승해도 2열 헤드룸과 레그룸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운전자 중심의 공조장치는 배려심이 돋보였다. 과거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주요 공조장치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분리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기능

을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적재공간이다. XM3는 513L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487L로 26L 감소한다. 만약 패밀리 SUV를 고민한다면 XM3를 추천한다.

XM3 하이브리드는 전 트림에 ▲오토 홀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차간거리경보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 ▲차선이탈방지보조시스템(LKA) ▲오토매틱하이빔(AHL) 등의 주행 안전 및 편의 기능이 기본 장착했다. 인스파이어 트림의 경우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보조(HTA)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등이 추가로 기본 제공되며, INSPIRE(e-시프터) 트림에는 전자식 변속기 e-시프터(e-Shifter)가 더해져 기존 기계식 변속기보다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XM3 하이브리드의 RE 트림은 3195만원, 인스파이어는 3452만원, 인스파이어 이테크 디자인 패키지는 351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T, 中企 AWS 클라우드 운영비 최대 40% 낮춘다

ARM 기반 서버로 이전 지원
중기·스타트업에 우선 제공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료 개방

SK텔레콤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기반 클라우드 운영비용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SKT가 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AWS 기반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솔루션으로,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높은 인텔·AMD 기반 서버에서 저전력·고효율 CPU인 암(ARM) 기반 서버로의 이전을 지원해 운용 비용을 20~40% 절감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현재 대부분이 인텔이나 AMD CPU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아마존이 저전력에 성능까지 뛰어난 ARM 기반 자체 개발 CPU인 그레비틴 서버로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기업이 전환을 추진했

(X86기반 AWS 서버와 ARM기반 AWS 서버(Graviton) 비교)



으나, 단순히 서버만 변경할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SKT는 2022년부터 자사와 ICT 패밀리아의 AWS 비용 절감을 위해 그레비틴 기반 서버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국내 최대 수준인 전체 클라우드 사용량의 약 17% 이상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그레비틴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해 전환 솔루션

을 직접 개발하게 됐으며 지난달 AWS로부터 국내 유일의 공식 파트너(SDP 인증)로 인정받았다. 현재 AWS가 공식 인증한 전환 솔루션 파트너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KT를 포함해 6개사에 불과하다.

고객사가 인텔이나 AMD 환경에서 개발된 앱을 그레비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가능 여부 진단 ▲전환 컨설팅 ▲실제 전환 실행 과정이 필요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DIA-車튜닝협회와 맞선 정보·기술교류 통해 애프터마켓 시장 진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자동차 애프터마켓까지 노린다.

KDIA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위크2023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DIA는 지난 1월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를 발족하고 자동차 전장 시장 공략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애프터마켓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KDIA는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구형 차량 소유자들도 이를 누리기 위해 애프터마켓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LED가 프리미엄 및 개성을 추구하는 튜닝 수요자들에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전세계 100조원 이상,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은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이 제한됐지만,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와 기준 합리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도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DIA는 애프터마켓과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튜닝산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정보·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증대를 위한 전시·포럼 개최 상호 협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KDIA는 튜닝산업협회와 함께 OLED를 적용한 프리미엄 콘셉트카를 제작하는 등 차량용 OLED 튜닝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산학연 협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벤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홀딩스와 서울대는 1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산학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스코그룹은 그

룹의 벤처플랫폼을 활용, 서울대의 우수 연구성과를 창업 및 벤처펀드 투자로 연계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 양 측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힘을 합친다. 포스코그룹은 핵심사업 전반에 걸쳐 서울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동참하는 개방형 협업 연구과제를 추진

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를 신설, 포스코그룹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최정우 회장은 “서울대의 우수한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상용화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포스코그룹은 친환경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영입하고 R&D 투자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왼쪽)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산학연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